



근긴장이상: 환자분들을 위한 안내

근긴장이상은 무엇인가요?

근긴장이상이란 근육이 제멋대로 경직되거나 힘이 들어가 수축하는 증상을 뜻하며, 이로 인해 신체의 일부가 꼬이거나 떨리게 되고, 비정상적인 자세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긴장이상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으나, 보통은 신체의 일부분에서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흔한 근긴장이상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의 근육이 수축하여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기울거나 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고개가 떨리는 증상과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부 근긴장이상 혹은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 눈 주위 얼굴 근육의 수축으로 과도한 눈깜박거림이 생기거나 눈이 잘 안 떠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를 안검 연축이라고 부릅니다. 안검 연축이 있는 환자에서 입 주변 근육에도 과도한 근육 수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메이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턱이나 혀에 근긴장이상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연축성 발성장애의 경우 긴장되거나 거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 글씨를 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의 특정 동작을 할 때만 손에 근긴장이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작업 특이성 근긴장이상이라고 부릅니다.
- 어떤 경우에는 근긴장이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신체의 여러 부위에 증상이 있고, 유소년 기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신 근긴장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무엇인가요?

근긴장이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뇌 손상이나 감염 혹은 약물노출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년간의 반복된 행동 (예. 글쓰기, 악기연주) 후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특별한 원인을 알아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나요?

의사, 특히 이상운동질환의 전문가가 진찰 후에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혈액검사나 뇌 영상 촬영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는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 근긴장이상이 시작된 나이
- 근긴장이상이 생긴 신체 부위
- 근긴장이상이 갑자기 시작되었는지 혹은 점점 나빠지는지
- 다른 임상적인 문제가 동반되었는지

그러나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다른 병명으로 잘못 진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경미한 증상을 갖는 경우 진료를 받지 않고 진단되지 않은 상태로 지내기도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담당의사가 원인을 찾은 경우에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치료들이 있습니다. 흔하게 쓰이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콜린성 약물
- 벤조디아제핀
- 바클로펜
- 근 이완제

약물치료를 할 때는 대개 여러 가지 약물을 시도해보고, 부작용과 이득을 고려하여 최적의 약물을 찾게 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보툴리눔 독소 주사로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보툴리눔 독소 주사는 반드시 근긴장이상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에게 받아야 합니다. 보툴리눔 독소 주사는 일시적으로 근육을 약화시켜서 근육 수축과 떨림을 호전시키며, 보통 1년에 3, 4번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치료와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키지 못하면, 뇌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긴장이상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근긴장이상은 수개월이나 때로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더 악화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어떤 환자들은 근긴장이상이 신체의 한 부위에서 시작해서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근긴장이상 이외의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